

목양의샘

김삼복 목사 // 할렐루야교회 원로목사

겸손한 지체의의식이 필요하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무한히 다양하게 만드셨고 다양성 속에서 하나님의 동일한 일체를 체험하게 하신다.

나무도 큰 나무가 있고 중형 나무가 있고 작은 나무가 있다. 짐승도 다이나소어와 같은 큰 동물이 있는가 하면 치와와와 같은 작은 동물도 있다. 사람도 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작은 사람도 있다. 검은 사람, 흰 사람, 황색인까지 그 중간에 수백까지의 다양한 인종들이 있다. 몸도 머리나 가슴처럼 큰 지체가 있고 치아와 같은 작은 지체도 있다. 같은 나무의 풀도 크기가 다 같지 않다. 큰 것이 좋은가 작은 것이 좋은가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다.

주님은 한 사람에게 한 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두 달란트, 또 다른 사람에게 다섯 달란트를 맡기셨다. 얼마를 맡았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할 필요가 없다. 착한가, 충성스러운가, 그리고 열심히 받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며 즉각적으로 나가서 열심히 장사한 두 달란트를 받은 좋은 주님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과 한 글자도 다르지 않게 칭찬을 하셨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어떤 목회자는 큰 교회를 맡겨주셨고 어떤 목회자는 중형교회를 맡기시고 또 다른 목회자는 작은 교회를 맡기셨다. 어느 교회가 가장 바람직한가 하는 많은 토론과 의견이 있지만 그런 토론은 무용지물이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섭리에 따라 되어진다. 어느 목사가 큰 목사이거나 작은 목사이거나 말할 수 없다. 주님의 마지막 심판대에 섰을 때에야 그 결론이 난다. 이 땅에서 아무리 인간이 판단하고 칭찬하고 비판해도 마지막 심판자는 주님이시다. 우리는 이 사실을 깊이 유념하고 서로 간에 겸손하게 무리 없이 각자 맡은 사명을 착하고 신실하게 해가는 것만이 우리의 몫이다.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중형교회는 중형교회대로,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맡기신 사역이다. 상호간의 비판이나 작은 교회를 특별히 불쌍히 여기는 태도도 결코 타당하지 않다. 교회마다 각각 받은 축복이 있고 또 어려운 것들이 다 있다. 크기에 상관없이 교회마다 특수한 도전과 기회가 다 있다.

한국교회의 교회 크기에 대한 지나친 토론과 판단은 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대로 모두가 충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모든 교회들이 서로 협력하고 도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펼쳐가야 할 것이다. 성도들도 모두가 큰 교회를 선호하지는 않는다. 모두가 작은 교회나 중형교회를 선호하는 것도 아니다. 어떤 목사님은 평생 농어촌교회만 돌아다니시면서 은퇴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다. 농어촌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다음 목사님에게 넘겨주시고 다시 개척하는 일을 반복하신 목사님들도 계시다. 각자 맡은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만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를 위해 협력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서 끝까지 잘 섬겨야 할 것이다. 우리에게 철저한 지체의식이 필요하다. 어느 날 우리 모두가 "착하고 실한 종"의 칭찬을 받게 되기를 바란다. 이 칭찬을 받도록 함께 힘쓰자.

한국복음주의협의회 주제 발표문

사설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 신앙인은 인생의 분재와 위기가 닥쳐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에 기적과 승리를 기대해야 한다. '에베에셀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면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일으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기대해야 한다.

인도의 민족지도자 간디는 "당신이 항상 진리 편에서 일을 행하면 우주의 지지를 얻게 된다"라고 말하였다. 진리 편에서면 역사가 당신 편이고, 전 우주의 지지를 받게 된다. 그러나 악의 편에 선다면 역사를 거스르게 된다. 어느 편에 서느냐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해방을 위한 남북전쟁 중에 남군에게 밀려서 패전의 위기를 느낄 때가 있었다. 그때 링컨의 한 참모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라고 참모회의에서 건의하였다. 이 말을 들은 링컨은 "내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편에 설 때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링컨은 하나님의 편에 섰기에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고 노예해방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편인가, 세상 편인가?' 하는 것은 인생의 중대한 선택이다. 이 선택으로 정세가 결정된다. 세상의 편, 마귀의 편에 선다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 하나님의 편에 선다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승리의 삶, 성공의 삶, 축복받는 삶,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남북조찬기도회-복음, 평화통일 위해 기도

남북조찬기도회는 지난 22일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남북통일과 한반도평화를 위해, 남북한 지도자를 위해, 남북한 복음화를 위해 기도했다. 북한의 복음화가 시급함을 일깨우고 이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다. 불편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 기도했고 이 땅의 평화를 위해 모두가 하나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지난 반세기 동안 민족의 비극인 동족상잔의 아픔을 안고 남과 북이 분단된 채 냉전적 갈등을 계속해 왔다. 경의선과 동해선이 개통되고 금강산의 문이 열리고 개성공단이 가동되는 등 남북간에 막혔던 왕래의 길이 트이게 됐다. 천안함 사건으로 다시 얼어붙고 말았다.

남북통일은 상호신뢰의 바탕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다가오지 않는다. 상호신뢰 없는 대립관계 종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뢰를 갖게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협상을 위한 협상을 하고 상대를 속이기 위한 공동선언문을 작성하는 행위를 계속하는 한 불신의 벽만 두터워지게 된다. 핵무기를 만들고 불바다 운운하며 위협하기를 예시로 하는 상대를 신뢰할 수 없는 것이다.

아랫은 남북통일은 언젠가는 통일 되어야 하고 반드시 통일 될 것이다. 동족이라는 유대감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월드컵에서 북한 선수들이 브라질과 선전을 했을 때는 뿌듯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었지만 포루투갈에 대패할 때는 안타까운 마음마저 들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통일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한국교회가 남북통일을 위해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주시리라 믿는다.

우리의 기도가 상당하려면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성직자가 성직자다워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목양시단

이항 목사 // 기하성 중경총회장, 갈릴리교회 원로목사

나무



거북이 같은 등허리에서 나무가 난다
어둠 속에 등근 원을 그리며 무릎이 썩는 자양으로 나무가 자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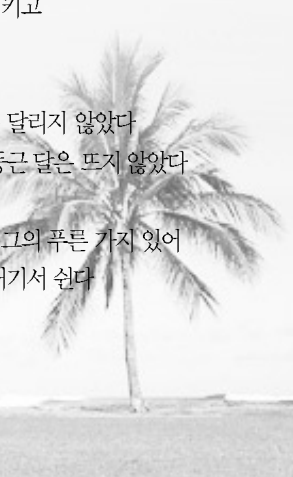
저 순하디 순한 나무
원 종일 세월에 부대껴도 언제나 제 자리 그 자리에 뿌리내리고

창자가 뒤틀리는 아픔으로 등근 원을 흔든다

저 까칠까칠한 나무
몇 번의 태풍에 사지를 꺾어우고
몇 번의 겨울 강도에 벗겨 매운 매를 맞아도
잘린 손 다시 하늘로 치켜들어
뜬눈으로 이 밤을 지키고
다시 앞을 틔운다

아직 그 나무에 꽃은 달리지 않았다
아직 그 머리 위에 등근 달은 뜨지 않았다
그러나 하늘로 뻗친 그의 푸른 가지 있어
작은 바람 작은 새 거기서 신다

저 등걸 터진 나무



목양신문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고문 : 대표총회장 조용목 목사
- 발행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 ▶ (02)2677-9937
- 광고국 ▶ (02)2675-5183 FAX ▶ (02)2677-4609
-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677@paran.com
- 150-1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5가 89-1

●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2010년도 상반기 편목연수교육 및 총회 목대원 계절학기

1. 교육명 : 2010년도 상반기 편목연수교육
2. 기간 : 2010년 7월 12일(월)~ 7월 14일(수) 2박3일간
3. 장소 : 총회목회대학원(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89-1) TEL : 02-2677-0692~3
4. 교육기관 : 총회 목회대학원
5. 숙식 : 전원 숙식제공(출·퇴근 가능, 성경, 찬송가, 세면도구 지참)
6. 대상자 : 1)타 교단에서 목사안수 받고 본 교단으로 전입가입자(가입 청원 대상자 포함)
2)본 교단 신학교 졸업 후 타 교단에서 목사안수 받고 본교단 가입자
7. 등록선교한금 : 800,000원
8. 입금계좌 : 계좌번호 : 농협 367-02-166080 조용목(하나님의성회)
9. 입학원서 : 본 교단 홈페이지 www.aogk.org 자료실에서 연수교육 입학원서 추천서 서식 다운받아 사용
10. 등록 마감일 : 2010년 7월 5일(월) 오후 5시까지 총회 본부 도착(입학원서 함께 입금영수증 사본)
11. 총회본부 주소 : 150-105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5가 90-3
12. 편목고시 : 교단 목사고시위원회 주관 실시(일자 추후 알림)

※ 문의처 :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본부 02-2675-5181~3
<각 지방회장 및 총무께서는 연수교육 대상자를 확인하시어 빠짐없이 연수교육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명 : 총회 목회대학원 상반기 계절학기
2. 기간 : 2010년 7월 12일(월)~ 7월 14일(수) 2박3일간
3. 장소 : 총회목회대학원(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5가 89-1)
4. 대상자 : 1)목회대학원 한 학기 미 이수 목회자
2)본 대학원 계절학기 대상자
5. 등록선교한금 : 800,000원
6. 등록선교한금 입금방법
1)계좌번호 : 061701-04-112318 (국민은행)
2)예금주 : 배진기(총회목회대학원)
3)의뢰인 난에 반드시 성명 기입
7. 수강자 전원 침식제공 (출퇴근 가능)
8. 등록 마감일 : 2010년 7월 5일(월) 오후 5시까지

※ 문의처 : 총회목회대학원 행정실 TEL : 02-712-0691, 02-2677-0692~3